



김종훈

한-미 FTA 재협상 논의

한미 FTA가 발효되는 데까지 약 5년이 걸렸고
그 5년 동안 협정문을 두 번 고쳐 쓰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주의 유혹이 고개를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가 먼저 우는 소리를 해야 할까?

협정의 개정 논의가 공식화되기까지는 양측 간 대화의 공방과
기싸움이 있기 마련일 터인데 미국이라고 지레 주눅들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협상에서는 덩치에서 나오는 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연한 논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종훈

-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2006)
- 통상교섭본부장 (2007~2011)
- 2005 APEC SOM(고위관리회의) 의장
-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국제위원장)
-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2002)
-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2000~2002)

1. 무역 자유화의 흐름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전쟁의 뒤에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곤 하였다.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사회는 크게 두 가지 이상 아래 새로운 질서 창출을 시도하였다.

하나는 UN의 창설을 통한 평등한 주권 국가들 간의 평화 공존,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의 안정과 공동 번영의 추구였다. 후자를 위해 IMF, IBRD, GATT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국제기구들은 그 운영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인류의 공동선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 GATT는 관세의 지속적 인하를 통한 세계 무역의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내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거쳐 이제는 지구촌 16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체제로 발전하였다. 2차 대전 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이 큰 흐름에 동참하였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을 시작한 60년대 이후 특정 상품이든 산업 분야이든, 개방 또는 자유화가 화두가 될 때마다 예외 없이 큰 사회적 진통을 겪었지만,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개방은 힘들어도 우리 경제에는 약이 되었다.

2. 미국 우선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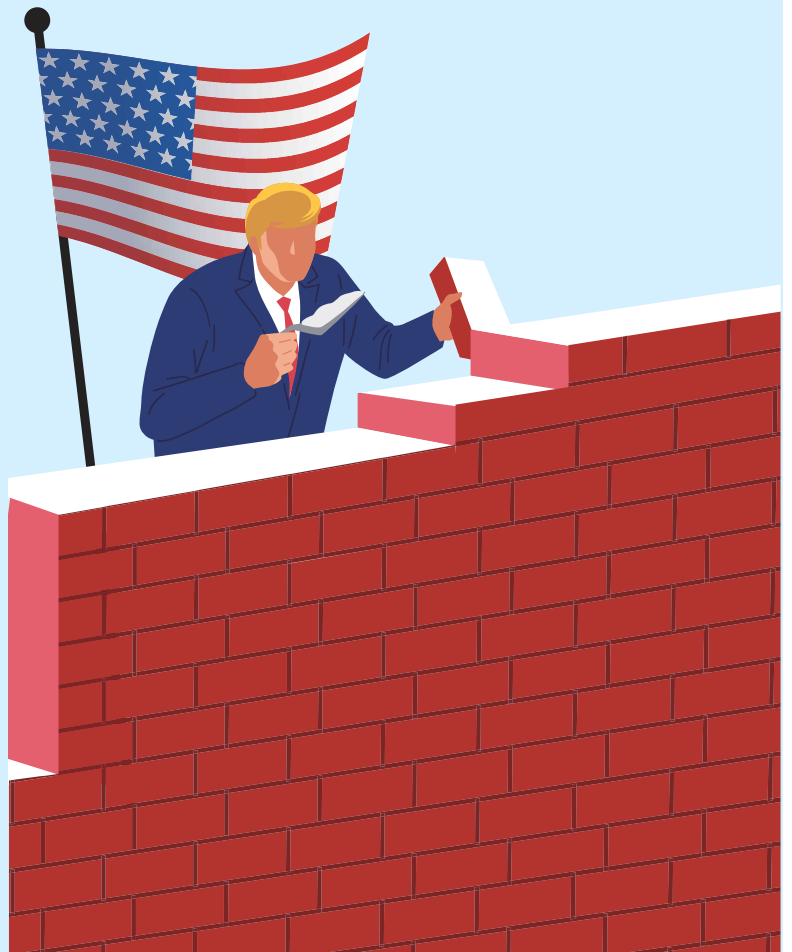
개방과 더 나아가 경제의 세계화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누구였나? 바로 미국이었다.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세계화로 미국의 제조업이 어려워졌고, 자유 무역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던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몇 가지 액션으로 이어졌다. TPP 탈퇴, NAFTA 재협상 착수, 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나라도 아닌 세계의 제1경제 대국이며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 지구촌에 새로운 사조(思潮)가 대두되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든다.

과연 세계가 자급자족과 각자도생의 오타키 (Autarky, 경제자립정책)로 돌아가서 20세기 초 근린공핍화정책 (近隣窮乏化政策, beggar my neighbor policy)이 다시 대두될 것인가? 그것은 속단이라고 믿고 싶다.

하여튼 미국이 다자주의를 버리고 일방주의로, 자유무역보다는 소위 공정무역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심상치 않은 일이다.



3. 한미 FTA 5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에 한미 FTA는 “Job Killer”라고 했고, 지난 4월 27일에는 끔찍한(Horrible)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하거나 종료해야 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약, 협정, 협약은 (심지어 사적 계약도) 발효, 개정, 종료 등의 약관조항을 둔다. 이는 법적 완성도를 구비해야하기 때문이고, 당해 조항들이 인용되어 실제로 개정하거나 종료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그 합의가 성립되어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성적을 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향후 조치의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 조치가 개정이든, 업그레이드든, 조정이든, 보완이든, 종료로 이어지든지 간에,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한 사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우선,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교역은 증대하였다.

둘째, 그 교역의 증대는 한미 양국에 공히 혜택이 되었다. 한국 수입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6%,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0.6% 늘었다. 0.6%라는 숫자는 매우 미약하지만 미국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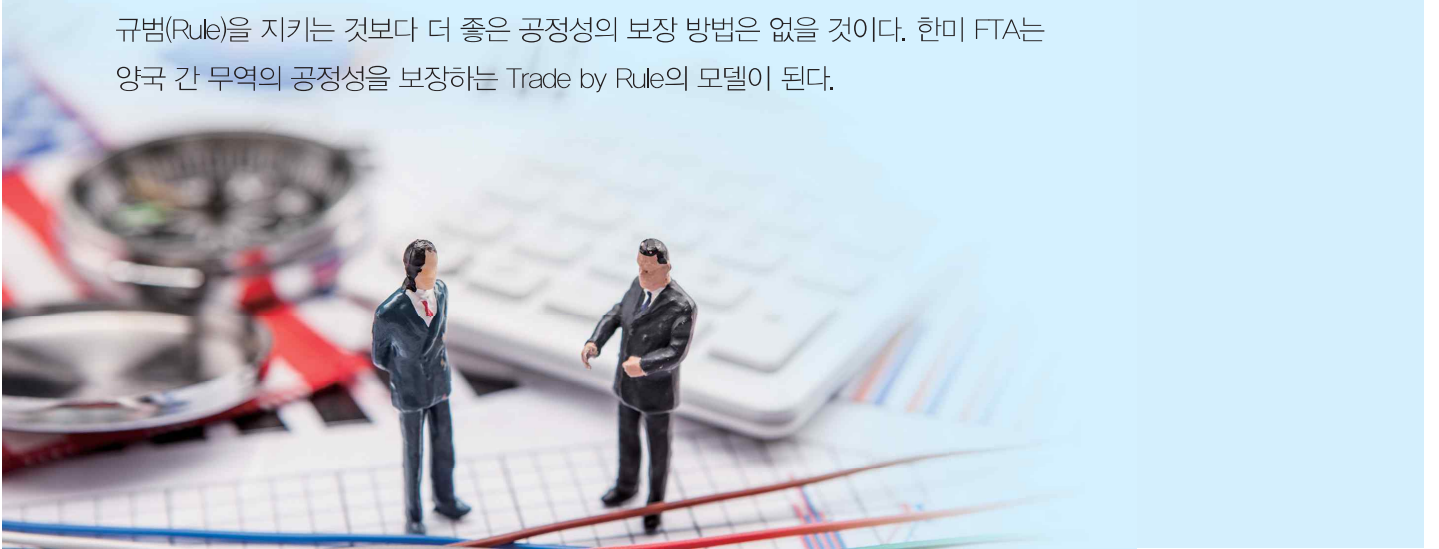
셋째, 미국은 한국 외에도 19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양측이 공히 상대국 시장에서 뚜렷한 점유율의 상승을 보인 것은 한미 FTA가 뚜렷한 사례로서, 이 협정은 Win-Win의 본보기가 되었다.

넷째,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50억불 증대하였지만 그 중 100억불은 자동차, 철강, IT 제품과 같이 FTA 협정 상의 관세 감축이 거의 없었던 품목이었다.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 증대 품목에는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치즈, 아몬드와 같이 한국 측의 대폭적 관세 인하가 있었던 품목이었다. 즉 FTA로 인한 관세 감축으로 수출 증대 혜택은 미국이 더 크게 보았다.

다섯째,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GDP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100억불 정도의 대한국 흑자를 보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향후 전개될 제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양측 간 협력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여섯째, 지난 5년간 세계 각국의 대미 투자는 약 30% 증대한 반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는 두 배 이상 증대하였고, 지금 유수한 한국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4만 5천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임금은 미국 내 외투기업의 평균 임금보다 약 1만불 이상 높다. 한국 기업들은 한미 FTA 이후 미국에 투자를 증대하면서 Quality Job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최근 공정무역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바, 양측 간 합의한 규범(Rule)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공정성의 보장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한미 FTA는 양국 간 무역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Trade by Rule의 모델이 된다.



4. 미 신행정부와의 통상 대화

한미 FTA는 협상에는 1년 남짓 걸렸고 협상 타결 후 양국 의회의 동의를 받고 발효되는 데까지 약 5년이 걸렸다. 그 5년 동안 양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또한 협정문을 두 번 고쳐 쓰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자동차 3사가 도산 지경에 이르러 새로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통화의 양적 완화로 경제 살리기에 돌입하였고, 이것이 자동차 부분 등의 재협상 배경이 되었다.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주의 유혹이 고개를 든다. 지금은 어떠한가? 선진 경제권 중에서 미국이 가장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기록적으로 낮은 지표를 보이는 반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가 먼저 우는 소리를 해야 할까? 미국은 무역수지의 적자 자체를 이유로 FTA 재협상을 언급하고 있으나, 미국의 무역 적자 8천억불 중 한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가 시장의 자율과 소비자의 선택이 희생당하는 관리무역을 초래한 정도인지를 냉정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협정의 개정 논의가 공식화되기까지는 미측의 국내적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 과정에 양측 간 대화에는 공방과 기싸움이 있기 마련일 터인데 미국이라고 지레 주눅들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협상에서는 덩치에서 나오는 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연한 논리가 더욱 중요하다.